



환경보고서와 기업의 환경 · 안전 · 보건 개선 활동



김원민 Kim, Won-min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Head of Environmental Economy Division,
Ministry of Environment

〈주요약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석사
- 환경부 대기관리과, 유엔환경계획 근무

〈Profile〉

- 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 MS in Economic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Worked at Air Pollution Control Divisio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UNEP

1. 머리말

환경보고서(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s ; CERs)는 기업의 환경관련 성과 및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이다. 환경보고서는 Norsk Hydro(노르웨이)와 Monsanto(미국) 같은 기업에 의해 1980년대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환경영향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기업에서 주로 발간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금융분야(UBS, Credit Swiss, ING Bank) 등 비교적 적은 환경영향을 발생시킨다고 인식되고 있는 서비스 업종의 기업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환경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 선진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업의 전략과 결합하여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비전과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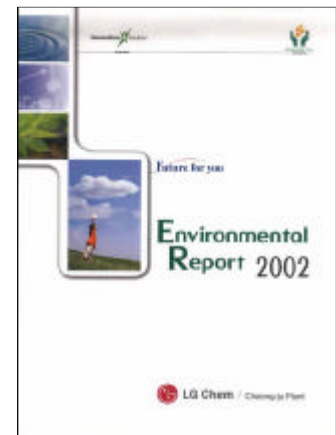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환경보고서 발간 활동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많은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표준화된 보고서 양식을 개발하고 환경보고서 발간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GRI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ISO에서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하였다.

작성지침 개발 기관	세 부 내 용
VfU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in Banks, Saving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환경경영에 대한 산업별 전략과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은행과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환경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문헌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이드에는 권고가 되는 정량적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PERI (Public Environment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s)	1993년 북미 선진 9개 기업이 개발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보고 조직, 환경방침, 환경경영, 배출물, 자원보존, 환경 리스크 관리, 법규 준수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제시



작성지침 개발 기관	세 부 내 용
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양식을 개발하였다. 이 양식은 정성적, 정량적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표준버전이나 약식버전을 합쳐 현재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저점별로 기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기관은 또한 보건서비스, 전기 및 가스, 재무서비스 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CEFIC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화학산업의 환경보고서와 관련하여 기업보고서 및 사업장단위 보고서 가이드라인, 표준배출물목록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dos and don'ts)'의 목록 등을 개발하였다. 1998년에 CEFIC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현재 16유형의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UNEP & SustainAbility	UNEP와 런던기반 컨설팅회사인 SustainAbility는 '50 Reporting Ingredients'를 기반으로 기업환경보고서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SustainAbility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1994, 1996 및 1997년에 벤치마킹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1997년에 CERES에 의해 세워진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전 세계적인 활용을 위해 표준화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보고서가 도입되어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본이 약 430개 기업에서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데 비하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20여 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1999년 12월 "기업의 환경신뢰성평가방법 개발"¹⁾이라는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기업들이 환경보고서 작성을 촉진하고 환경보고서 작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13개 사업장²⁾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장 적용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의 발간을 통해 공개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환경성과평가지표 개발, 환경회계가이드라인 개발, 환경경영성과계량화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가이드라인 및 환경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LG화학 청주공장 환경보고서
CER of LG Chem (Cheongju Plant)

2.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 환경보고서의 발간 이유, 환경보고서의 사용자, 환경보고서 작성 절차, 환경보고서의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주)에코프론티어(www.ecofrontier.co.kr)가 기업의 환경신뢰성평가방법개발 연구용역 수행

2) 전기·전자 업종(삼성전기, 삼성전자, LG전자(창원1·2사업장), 삼성코닝), 화학업종(LG화학(여수·청주사업장), 태평양), 자동차업종(현대자동차(울산)), 제지업종(유한킴벌리), 항공업종(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숙박업종(호텔신라) 등 6개 업종에서 13개 업체가 참여. (주)에코프론티어 및 LG환경안전연구원에 의해 용역 수행



1) 환경보고서의 작성절차

환경보고서의 작성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 1단계 : 환경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환경보고서 작성범위, 작성기간,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환경보고서 작성범위를 1개 사업장 단독으로 할 것인가, 기업 전체로 할 것인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국외 기업까지 포함할 것인가 등 작성 조직의 범위와 작성기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2단계 : 이해관계자 설정
설문조사, 워크숍, 시장 조사, 공개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등을 이용하여 환경보고서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와 이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내용을 분석한다.
- 3단계 : 환경영향 및 환경성과 분석
사업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환경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노력의 성과를 분석한다.
- 4단계 : 환경정보 공개항목의 개발
환경영향 및 환경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한 환경정보 공개항목을 개발한다.
- 5단계 : 환경정보 공개방법 개발
환경정보 공개항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개방법을 개발한다.
- 6단계 : 측정 및 평가
데이터 수집(Collecting), 조합(Collating), 분석(Analysing)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한다.
- 7단계 : 환경정보공개내용 검증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의 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8단계 : 발간·배포 및 feedback
환경보고서를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정보내용을 보완한다.

2) 정보공개항목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의 정보공개항목은 기업개요, 환경방침 및 목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영향 및 성과,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경영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공 개 분 야	공 개 항 목
기업 개요 (3)	1. 최고경영자의 선언 2. 사업 개요 3. 환경보고서 개요
환경방침 및 목표 (1)	환경방침 및 목표
환경경영시스템 (3)	1. 환경경영체제 2. 환경사고 대응체제 3. 환경감사
환경영향 및 성과 (9)	1. 자원 사용(Input) → 물질/에너지/용수 사용 2. 오염물질 배출(Output) → 대기·수질오염물질/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3. 보건·안전 4. 환경영향평가 5. 소음·진동 6. 환경친화제품 생산·소비 7. 환경친화적인 포장 8. 환경친화적인 수송 9. 환경회계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4)	1. 자연생태계 보전노력 2. 이해관계자 관계 3. 법규 준수 4. 인증·수상 경력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1)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비전 및 전략

3. 맺 음 말

환경보고서의 발간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국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환경보고서의 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도 증권거래소에 기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하여 자사의 보고서의 수준, 투명성, 신뢰성 등의 향상을 꾀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검증 가이드라인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일본, 홍콩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보고서에 대한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환경보고서에 대한 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도 국제동향에 대한 파악과 해외 선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꾸준히 수행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외 선진기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가치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Henkel과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내외적으로 인정받아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FTSE4 Good 등에 선정되어 사회적 책임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평가결과는 바로 금융시장과 연계되어 연금 투자나 에코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성과 또는 지속가능성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재무성과 또한 우수하다는 증거들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에코펀드가 지난해에 도입되면서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에 환경성도 고려하면서 종전의 수동적인 환경관리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환경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기업의 환경전략을 외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바로 환경보고서이다. 해외에서는 외부평가기관에서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환경보고서이다. 기업의 환경성과의 우수성과 더불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기업의 투명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업의 환경성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공개정도가 미약하여 외부에서 그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다면, 평가 시 그 성과에 합당한 결과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당장에 나타나는 성과가 우수하지 않다고 하나 개선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 솔직한 외부 공개가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2002년 5월에 발간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여 기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환경보고서 발간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래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성과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여야 하며, 해외 선진 기업처럼 GRI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환경성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기업홍보와 가치 극대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GHS 이행과 화학산업의 대응 방안



이 정 복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상무이사
Lee, Jung-bok, Managing Director,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 체계를 통일화하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의 채택과 이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GHS에 대한 소개와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운송을 위한 국제 연대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 화학산업 또한 이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각종 산업의 고도화·전문화·대규모화로 인해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종류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유해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 취급 및 저장, 운반 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위험성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 국가 안에서조차 여러 법에서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마다 다른 제도를 가짐에 따라 화학물질의 교역시 불필요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체계를 세계적으로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 국내·외 화학물질 분류체계

우선 국내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산업용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위험 및 인체·환경유해성에 관하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분류하며, 인체유해성에 관해서는 '약사법'을, 농약의 인체·환경유해성은 '농약관리법'을, 물리화학적 위험에 대해서는 '소방법'을 근거로 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해상교통관리법'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분류체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법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화학물질 개발 및 화학 발전의 역사가 길어 많은 사고를 먼저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과 같은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정립하였다. 또 OECD, IFCS, UNEP 등 국제 활동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면서 선도그룹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유해물질 관리체계는 관련 부처간에 'Inter-Agencies Committee'를 구성하여 부처간 긴밀한 협력·공조 체계 구축에 의한 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국가 독성프로그램의 공동운영(시험물질 선정, 공동평가 등), 부처간 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유, 정책방향의 결정에 공동 참여 등이다.

일본의 경우 '노동안전위생법(안위법)'과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에 의해 신규 화학물질 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안위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성 및 발암성 물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화심법에서는 환경을 경유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난분해성, 생물농축성 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2 국제 분류·표시체계의 통일화

분류·표시의 국제적 통일화의 필요성은 모든 국가·지역 차원에서 인식되어 왔지만 최초의 정책대응은 1992년 6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CED)의 리우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체계의 통일화를 Agenda 21 Chapter 19의 6개 실행 프로그램 중 하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환경·근로자·소비자안전·운송 등에서의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와 호환성 있는 표시 시스템을 정하도록 하였다.

통일화 작업은 의제 21 제 19장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화학안전국제포럼(IFCS)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구간 프로그램(IOMC)이 중심 역할을 맡아 조정,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WHO, ILO, UNEP, FAO, UNIDO, UNITAR, OECD 등 여러 국제기구가 이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현재 유엔 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UNCETDG)의 산하에 GHS 소위원회 및 위험물운송(TDG)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들 소위원회는 2001년 7월에 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물리적 위험, 독성, 환경유해성에 대해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였다. 표시 기준의 일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늦어도 2002년에는 마무리되어 UN에서 GHS 권고안이 채택될 예정이고 이들 통합된 GHS 시스템은 2008년까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GHS의 분류체계

국제 통일 유해성 분류 시스템, 즉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 건강위해성, 환경유해성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일치하는 분류기준을 도입하여, 이 분류기준에 따른 호환성 있는 유해성 표시, 근로자를 위한 안전성 데이터(SDS) 등 유해성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시스템의 적용은 (1) 화학물질의 제조·취급·사용·운송 등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더 용이하게 하고, (2) 통일된 분류기준, 심볼, 표시, 경고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결과적으로 근로자, 소비자, 잠재적 노출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3) 또 산업체는 국제적 장벽의 제거로 화학물질의 개발·제조·판매·운송·경고표시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절감된다.

물리화학적 유해물질과 관련된 주 유해성 물질군의 분류는 표 1과 같으며, 여기서는 유해물질의 종류(예, 인화성) 및 그 유해성 정도(hazard category, 예, extremely flammable, highly flammable, flammable)에 따라 구분되어있다. 환경 유해물질은 현재 수생환경유해물질 1개 분류가 있는데, 이는 다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된다. 급성 수생독성(acute aquatic toxicity)에 대해서 3개의 카테고리화, 만성 수생독성(chronic aquatic toxicity)에 대해서는 4개의 카테고리화 분류된다. 독성 유해물질(toxicological hazard)은 7개의 class로 나뉘며, 각각의 class는 과민성(sensitisation)을 제외하면 다수의 위험물질 카테고리화 나뉘어진다. 예를 들어 급성독성의 5개 카테고리는 물질의 LD50(경구, 경피독성) 또는 LC50(흡입독성) 값에 따라 정해진다.

Table 1. 물리화학적 유해물질과 관련 주 유해성 물질군의 분류

Physical & Chemical Toxic Substances and Classification of Related Major Toxic Substance Groups

Physicochemical hazards	Toxicological hazards	Ecotoxicological haz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losivity • Oxidising properties • Flammability • Pyrophoricity • Self-reactivity • Reactivity with 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ute toxicity Irritancy/corrosivity (for skin and eyes) Sensitisation Carcinogenicity Mutagenicity Toxicity for reproduction Chronic/target organ toxi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zardous for the aquatic environment

● 심볼과 픽토그램

GHS에서 사용될 심볼과 픽토그램은 Table 2와 같다. 여기서 느낌표와 물고기 및 나무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엔 위험물운송권고(UNRTDG)의 위험물질 운송 규정에서 확정된 표준 심볼이며, 해골과 십자뼈 심볼은 심각한 독성 물질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수질환경 위험에 대해 사용되어온 EU의 물고기와 나무 심볼은 GHS에서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심볼들은 현재 위험물질의 운송 표시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형태 속에 넣어서 사용될 예정이다.

3. 향후 전망과 대책

현재까지 물리적 위험, 독성, 환경유해성의 분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였으며, 표시 기준의 일부분만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늦어도 2002년에는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어 UN에서 GHS 권고안이 채택될 예정이고, 2008년에는 통일화안에 따라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세계 통일 분류체계의 도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5월에는 화학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교역 시 규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개발을 최우선 의제로 하여 아태경제협력체(APEC) 내 화학대화협의체(The Chemical Dialogue)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 SDS제도가 포함된 GHS를 도입하여 2006년까지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GHS 이행 시 APEC 역내에서 거래비용이 5%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통일 화학물질 분류 시스템은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부분이 기존의 선진국 시스템과도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다. 혼합물에 대한 기준도 급성독성에 대하여 가산법을 적용하는 등 복잡한 평가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 전에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일된 분류체계는 결국 국내 관련법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시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또 관련 전문가, 산업계 대표, 시민 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도입에 따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RCLG 2002 회의 (2002. 8. 20-23)

■ RCLG 2002 회의가 "Responsible Care 원칙과 실천 강화 (Advancing Responsible Care Principles and Practices)"를 주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RC 협의회 대표로는 정종구 국제위원장, 임창희 법제위원, 김영찬 팀장 등 3명이 참석하였으며, RC Mentor 지정과 관련하여 정종구 국제위원장이 앞으로 한국의 Mentor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통상 각 국가별로 1명씩 선정되는 'RC Mentor'는 실행 지침코드나 성과지표 등 각국의 상황을 다른 RC 회원국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RC 활동에 대한 참여와 코드 보완, 인증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여러 국가에 자회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RC 실행과 관련하여, 이들 기업이 해당국가의 RC 기본방침이나 로고마크보다 본사의 방침과 로고마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RCLG의 Chuck Walls 회장은 앞으로 다국적기업이 국가별 RC단체의 운영지침과 로고마크를 따르도록 권장하기로 하였다.

RCLG에서 시행하고 있는 RC 실천에 따른 성과지표 조사에 대해서도 기존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Ox(황산화물), 먼지 등에 대한 배출량 조사와 함께, 앞으로 NOx(질소산화물), 에너지, 이산화탄소,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실천 기준과 범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의 RC Peer Review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의 활동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2개 회사를 대상으로 3일간 실시한 검증 사례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준비하고 있는 Security Code와 RC 인증 계획을 설명하였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RC 인증 계획은 ISO14001을 기본으로 한 제 3자 인증방식으로서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ACC(미국화학협회)의 Terry Yosie 부회장은 금년 2002년 6월 5일 개최된 Global CEO Dialogue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대화체는 2000년 6월 미국에서 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유럽, 미국, 일본의 화학기업 및 화학단체의 대표자 약 28명 정도가 참여하여 화학산업의 이미지 제고방안 등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RCLG 회원국들은 Global CEO Dialogue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참여 및 RCLG와의 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베네주엘라의 RCLG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ICCA/RCLG 회원수는 2002년 현재 47개국이 되었다.👏

한국RC협의회 Richard Slack 부회장 퇴임

■ Richard Slack 부회장(삼성석유화학 수석부사장, BP코리아 사장)이 대만 BP로 전근함에 따라 한국RC협의회 부회장직을 퇴임하게 되었다. 퇴임에 앞서 지난 8월 14일 노기호 회장실을 방문한 Slack 부회장은 한국의 RC가 실행코드를 작성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착단계를 밟고 있는 대해 축하하는 한편, 향후에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및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같은 관련 단체와의 활발한 연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부탁의 말을 전하였다.



한국RC협의회 2002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2002. 8. 17)

■ 한국RC협의회 2002년도 제 1회 이사회가 곤지암C.C 회의실에서 노기호 회장 외 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RC회의(APRCC) 준비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 가입의 건과 관련하여, 데구사코리아(주), 코리아카본블랙(주), 엘지엠에이(주)의 가입이 승인되었다.

화학산업 PL전문가과정 세미나 개최(2002. 8. 29)

■ 한국RC협의회는 전경련회관 특2회의실에서 회원사 RC코디네이터 및 PL담당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제조물책임(PL)전문가과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화학산업의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PL센터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 것으로, 한국RC협의회 박 훈 부회장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이 완전무결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진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화학산업의 PL관련사례에 대한 설명과 경고표시관리 방법, 제품안전을 위한 오사용분석 및 FMEA(Failure Mode & Effect Analysis) 활용기법, 기록관리방법 등으로, 주로 실무 차원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신입회원사(New Members)



데구사코리아(주)
Degussa Korea Ltd.
대표 : 후란츠 이슬링거
President : Franz Isslinger



코리아카본블랙(주)
Korea Carbon Black Co., Ltd.
대표 : 후란츠 이슬링거
President : Franz Isslinger



LG MMA(주)
LG MMA Corp.
대표 : 구 자 섭
President : Koo, Cha-sup

동서석유화학 RC 추진 발대식 개최(2002.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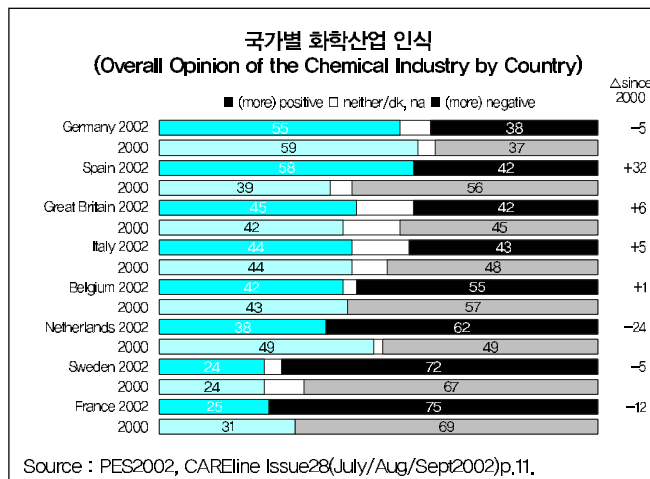
■ 동서석유화학은 지난 7월 23일 울산공장 전체 임직원과 본사 팀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RC 추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균철 사장의 개회사와 안전환경 실장의 RC 추진경과보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소개 후 한국RC협의회 김영찬 팀장이 RC의 배경과 실천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발대식은 동서석유화학에서 매달 개최하는 산업안전보건 행사와 병행하여, 사고사례 발표, 위험예지 경진대회, 안전퀴즈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실시되었다.

바이엘코리아 협력회사 RC 교육 실시(2002. 9. 10)



■ 바이엘 코리아(주) 폴리머사업부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성공적인 Business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Responsible Care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바이엘 코리아의 마르코스 고메즈(Mr. Marcos Gomez)사장은 바이엘의 제품전과정책임주의(Product Stewardship) 실천을 소개하며, RC 활동이 제품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서 바람직한 화학산업계의 업계관행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엘코리아의 폴리머사업부 전체 고객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RC를 소개하고 홍보한 최초의 사례로, RC 윤리의 대중 확산을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유럽의 화학산업 이미지



유럽 화학공업 협회(Cefic,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에서 최근 실시한 범유럽 여론조사(PES 2002)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화학산업의 이미지가 2000년보다 나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폭발사고 발생으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는 1998년부터 FEIQUE(Federación Empresarial de la Industria Química Española) 회원사를 중심으로 꾸준한 노력과 활발한 홍보활동을 기울여 온 결과, 화학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14포인트 감소한 반면 긍정적인 인식은 18포인트 증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화학 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 화학기업의 Responsible Care 추진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환경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바스프와, RC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서석유화학의 사례를 소개한다.

지역 사회와 화학 기업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환경안전협의회 ; CAP”

1. 환경안전협의회(CAP) 설립 배경

바스프는 1997년 외환 위기를 전후로 한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고, 여수 공장에 연산 14만톤 규모의 TDI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여수 시민 일반에게 내재해 있던, 여수산업단지 전체 석유화학 공단의 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바스프의 공장 건설을 매개로 나타나면서, 2001년 벽두부터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환경단체의 예상치 않은 반대 활동에 부딪히게 되었다.

한국바스프는 우수한 환경안전 관리 수준과 이를 증명하는 국내외의 인증 현황을 토대로, 여수시의회 및 여수시민단체와 수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스프 여수공장의 환경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바스프 여수공장이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수공장에 '환경안전협의회(Community Advisory Panel)'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1년 12월말, 국내 최초로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서 '환경안전협의회(CAP)'를 운영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다.



류종천 이사 Ryou Jong-cheon
여수공장 환경안전팀
Director, EHS Team of Yeosu Plant

2. 성공적 출발을 위한 노력

먼저, 화학 기업들의 환경안전관련 활동에 대해 지역 사회와 비교적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화학 기업들의 운영 사례에 대한 문헌 검토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독일 바스프의 CAP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 검토를 병행하였고, 국내에서 시도된 유사한 성격의 협의체(기관 중심적 운영 협의체) 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노력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환경안전협의회 운영회칙(Bylaw of CAP) 초안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출발에 앞서 CAP 운영 경험자들의 자문도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바스프의 CAP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화학 기업이 가지고 있는 CAP운영의 실제 경험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

CAP의 성공적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안인 '위원 위촉'은 여수 공장의 수 차례에 걸친 여수 지역 후보 위원 개별 방문을 통한 취지 설명과 바스프의 굳은 의지를 통해 일정한 규모의 위원 그룹을 초청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환경안전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의사, 교사 등 여수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10여명으로 창립위원을 구성하였다.

한편, 바스프의 여수공장 환경안전협의회 실시에 대한 약속과 의지를 전달하고자 신규 화학 공장 건설에 부정적인 여수 시민사회단체에게도 CAP위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정중히 거절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3. 운영 회칙의 주요 내용

환경안전협의회의 목적은 직접적이면서 열린 대화를 통하여, 바스프 여수공장의 환경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함께 발전하는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과 지역 사회의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채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안전 및 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 비상 연락 체계 및 비상사태 대비에 대한 사항, 화학 물질의 운송 및 취급 시 안전에 대한 사항, 기타 안전 · 환경 관련 사항 등이다. 위원 구성은 최대 15명으로 활동 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므로 무보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회의는 선정된 안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 또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사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장 현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분기 1회 정기 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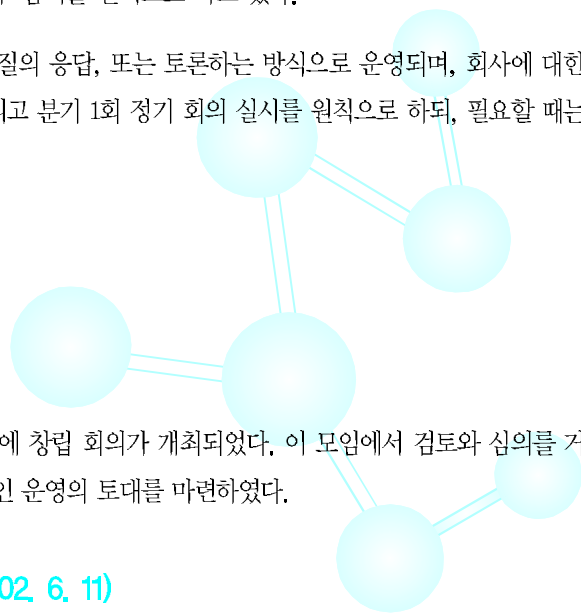
4. 회의 진행 경과

● 창립회의(2002. 3. 28)

여수 지역 오피니언 리더 10여명과 함께 2002년 3월 28일에 창립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현재의 운영회칙을 확정하여, 환경안전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제 2차 회의(2002. 4. 26) 및 제 3차 회의(2002. 6. 11)

환경안전협의회 위원 전원에게 'CAP위원 위촉장'과 'Responsible Care(RC) 배지 전달식'을 가짐으로써 한국바스프에서 차지하는 CAP의 권위와 활동 취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여수 공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용도와 생산 규모에 대한 소개와 여수 공장의 안전환경 경영 관리 일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아울러, 지역사회 일반이 갖고 있는 화학공장에 대한 편견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일례로 지역 사회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장 초청 행사를 활성화하지는 내용이 논의 되었으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화학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이 지역 사회와의 신뢰 쌓기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들의 동의 하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수공장의 CAP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의 환경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화학기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정기 소식지인 '환경사랑 안전사랑'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 4차 회의(2002. 8. 29)

4차 회의는 공장의 일반 현황에 대한 소개를 필두로, 공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현장 방문을 함께 실시하였다. 기존 가동 중인 MDI공장은 물론 현재 건설 중인 화학 공장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히, 비전문가들이면 누구나 막연히 불안해 하기 쉬운 화학 공장의 위험 물질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함께, 직접 해당 공정을 눈으로 살펴봄으로써 막연한 의심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환경안전 소식지 '환경사랑 안전사랑' 인쇄 이전에 위원들의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 소식지에는 환경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 사항과 소식은 물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용도를 자세히 설명하여 화학 제품이 우리 일상 생활과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여수 공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환경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소식지는 한국바스프 임직원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요청 시 무료로 관련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였다.

5. 성과와 향후 과제

성과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CAP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을 요약해 보면,

첫째, CAP 시행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해소되었다. 여수공장의 면밀한 준비와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 등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협의체로 돌아오고 있다.

둘째, 업계와 언론의 관심이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CAP활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관련 업계와 언론의 긍정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셋째, 바스프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공적인 CAP 운영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바스프 그룹의 2001년도 연례사회책임보고서(Social Responsibility Report)에 여수 공장의 CAP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될 정도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먼저, CAP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회의 의제 설정 등 참신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여수 지역 사회 위원들의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CAP 위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여수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반영을 위해 여성계 등에 대한 추가 위원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CAP 활동의 또 하나의 발전 원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바스프의 다른 지역 공장에서의 CAP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바스프 울산, 군산 공장에서도 한국바스프의 Responsible Care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사회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CAP의 추가 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노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CAP설립 취지대로 공개 대화를 통해 지역 사회와 화학 기업이 상호 협력과 지원 속에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바스프는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고의 CAP 활동이 되도록 이에 어울리는 노력과 실천으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



「환경사랑 안전사랑」 표지그림에서
Picture from the cover of *Love of Environment, Love of Safety*



동서석유화학(주)

국내 석유화학의 역사도 올해로 30여 년이 지났으며, 이를 인생에 비교해 보면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과 활동을 할 시기인 청년기로 생각된다. 그러나 30여 년 역사와는 달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증가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해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동서석유는 2001년부터 Responsible care(RC)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RC 도입초기의 정확한 방향 설정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 사적 추진과 지속적 향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이제까지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공장장 허 종 필
Huh Jong-Pil, Plant Manager

1 회사 소개

동서석유화학은 아크릴로니트릴(AN)의 세계 제 2위 메이커인 일본 아사이카세이사(旭化成)의 100% 자회사로 아크릴로니트릴(AN)과 청화소다(NaCN), EDTA 및 아크릴아마이드(AMD)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주 공정인 아크릴로니트릴 공정은 1969년 연산 약 3만 톤의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 13만톤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2003년 초 20만 톤 규모 공장이 완공되면 총 27만 톤 규모로 아시아지역 단일 공장 중 최대 생산 공장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한,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1985년 청화소다 사업을 개시하였고, 1995년 이후 AMD 및 EDTA 사업을 개시하여 석유화학에서 정밀화학으로 진출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RC 도입 시 적용원칙

1) 경영진 및 근로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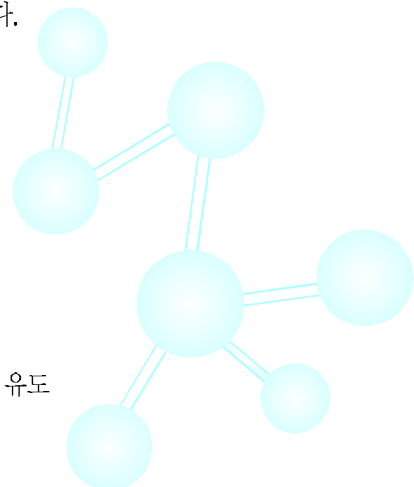
- 경영진과 근로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주기적 이벤트 실시
- 이행과정을 전 임.직원에게 홍보
- "동기부여"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

2) 기존 시스템 최대한 활용

- PSM, ISO 등 기존 시스템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며, 중복 절차서의 효율적 관리

3) 철저한 P(Plan), D(Do), C(Check), A(Action)를 이행하고 지속적 개선을 유도

-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할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우리가 했던 것을 보여주고 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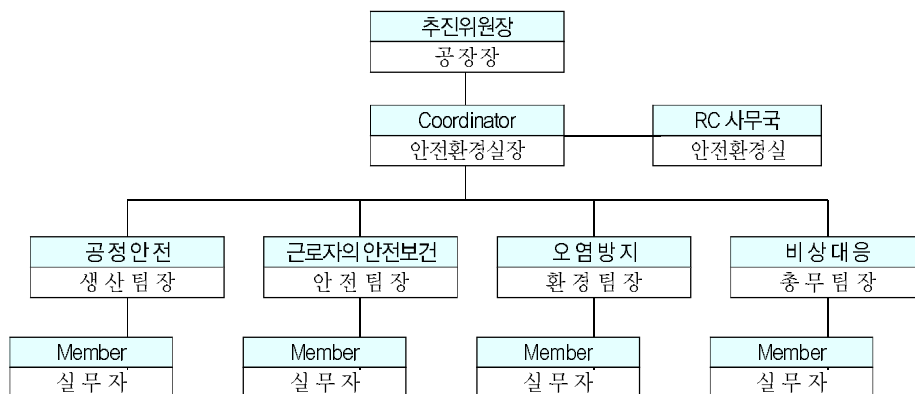
- 개인 및 부서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관리
- 매년 실수의 교훈,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하며 경영진 보고를 통해 경영방침에 반영

상기목표를 추진방향의 기본으로 설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관심에 의한 정책반영과 이에 따른 전 종업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어 안전·보건·환경 관리 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RC를 통해 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이의 관리를 통한 무재해, 무공해 및 피해 최소화가 계수화 됨으로써, 경영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과 경영전략으로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3. RC 추진현황

다음은 동서석유화학의 RC 추진현황을 순서별로 간단히 소개한다.

1) 추진팀 구성('01. 8월)



2) 역할과 책임

- Coordinator
 - RC 추진 주관 부서인 안전환경실장이 Coordinator로 임무를 수행하고 추진계획수립, 진행 중 문제점 실시간 해결 및 진행현황 경영진보고 등.
- 소위원회 Leader
 - 관련 소위원회별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팀장을 Leader로 선정하였고, 소위원회별 Leader를 중심으로 RC CODE에 대한 요건분석 및 지침 제·개정 시 반영사항 검토 등 임무 수행
- 소위원회 Member
 - 관련업무 실무를 할 수 있는 요원으로 기술, 생산 및 지원부서 인원을 선정하였고, 소위원회 Leader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분장에 따른 요건 분석 후 제·개정지침을 작성하는 임무 수행
 - 업무분장시 전 Member가 참여할 수 있는 업무분장의 배려가 필요하다.



3) 현상 파악

현상 파악 전 Check Sheet는 인근 회사의 양식을 벤치마킹 하여 추진사무국에서 준비하였고, 소위원회 Leader를 중심으로 KRCC에서 제시한 RC 코드 요건 및 현재의 상황을 약 2개월(2002.1~2월)간에 걸쳐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목표 설정 및 지침 제·개정 시 반영사항을 확정하였다. 또한, Check Sheet 적용방법에 대한 지식부족과 현업에 대한 겸직으로 담당자들의 업무비중이 증가되어 당초 계획보다 한달 정도 지연되었으며, RC 사무국 및 소위원회의 회합을 통해 자율적 해결방안을 찾아 현상 파악을 완료하게 되었다.

4. 중기 추진방향 설정

현상 파악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RC의 요건을 충족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1) 1단계 : RC 도입 및 기반구축('01. 7월~'02. 1월)

- 방침 및 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및 Team 구성('01.8월)
- 교육 및 현재의 안전·보건·환경 수준 확인

2) 2단계 : RC 활동정착('02.2월~'03년)

- 안전·보건·환경 규정 제·개정 실시
 - 제정지침(12건), 개정지침(18건)
- RC CODE 실행 및 자체평가를 통한 수준향상
 - 목표 : 6단계 중 3~4단계(현 수준의 50% Level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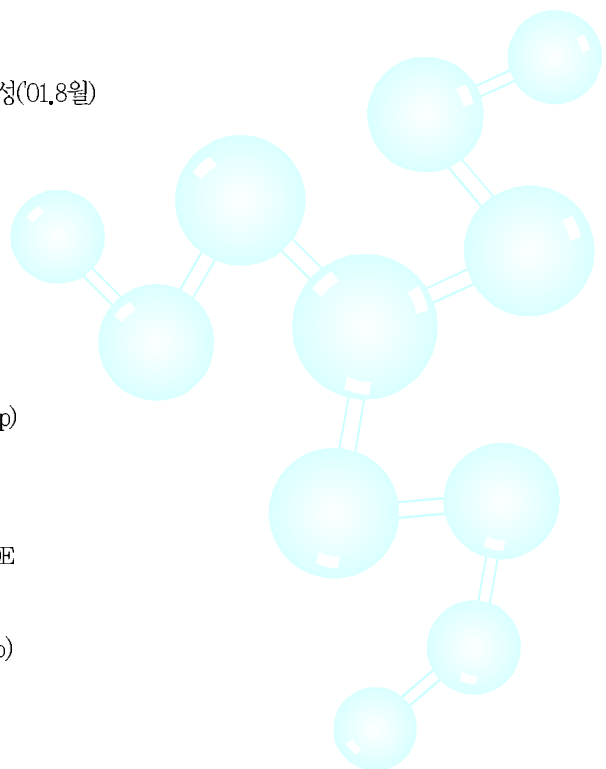
3) 3단계 : RC 활동 심화('04년~'05년)

- RC 실행 CODE 추가 수행 : 4개 CODE → 6개 CODE
- RC CODE 실행 및 자체평가를 통한 수준향상
 - 목표 : 6단계 중 5~6단계(현수준의 90% Level Up)

5. 2002년 추진현황

1) 안전·보건·환경지침 제·개정을 통한 업무절차 규정화 ('02. 4월~'03년)

동서석유의 경우 기존에 ISO-9002와 PSM제도만 운영되고 있어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업무절차의 규정화 및 기존 지침 중 보건 및 환경에 대한 내용 반영이 필요하였다. 이에 현상 파악 자료를 기준으로 제정(12건) 및 개정(18건)을 계획하였고, 지침 제·개정 계획은 Member 전원이 참여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사무국에서 개인별로 1~2개 지침으로 업무 분장하였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실적은 약 60% 정도로, 계획대비 진도가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추진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개최하여 진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주사인 아사이카세이사의 지침을 번역하여 동서석유화학의 지침 제·개정 시 참고하고 있다.

2) 전 사적 홍보를 위한 발대식 개최 ('02. 7. 23.)

2001년 8월 RC추진팀이 구성된 후 업무 추진이 추진요원 등 소수의 인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 사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발대식에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전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본사 및 근무자를 제외한 약 90%의 인원이 참여하는 이벤트로 개최되었다. 행사 중에는 실천 선언문 낭독 및 전 임직원의 서명을 통해 실천 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서명판은 본관 로비에 비치하여 누구나 항상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서석유화학 공정 내 작업 중인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본 행사에 참석하여 공사 중 안전 및 환경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3) 전사적 홍보를 위한 Quiz 시행 ('02. 8월~)

RC 추진내용을 전 사원에게 홍보하고,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Quiz 출제와 정답자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퀴즈 출제는 사내 메일을 이용하여 홍보 효과와 함께 참여가 쉽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 회 2명을 추첨하여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퀴즈 대회는 8월 이후 현재까지 4회 정도 실시되었는데, 약 20%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조회수는 전 직원의 65%정도에 달하고 있어, RC 추진의 효과를 높이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4) 전 사적 목표 설정 및 관리 ('02. 9월~)

동서석유화학에서 설정한 방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안전의 확보
- 폐기물 관리강화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 비상시 대응책 수립과 활동
- 오염 배출물질의 감축
- 제품 사용고객에 대한 안전확보 등
- 제품 및 원료 등의 운송 상 안전확보

RC추진팀에서 설정한 위의 RC 방침을 기준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실천 계획을 수립, 관리 중이다. 부서별 세부 실천계획에는 추진일정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책임 하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실적은 연말 자체평가를 통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RC방침과 목표에 대한 관리는 향후 RC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주주사인 아사이카세이사 일본 사업장의 실적을 벤치마킹하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1995년부터 RC를 도입, 운영 중인 아사이카세이의 운영 현황을 추진 실무자가 검토하여 도입 중 문제점 해결과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며, 연 2회의 감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